

Style

조선일보

MARCH 2023
vol.249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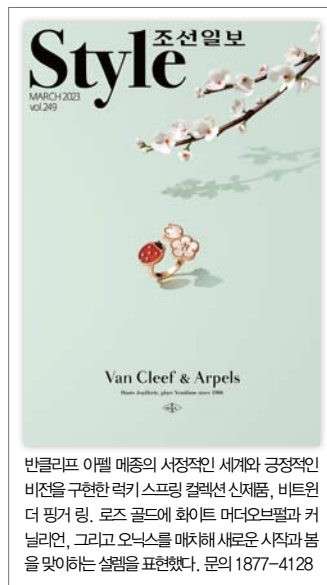


TANK FRANÇAISE
Cartier



DIOR
JEWELLERY

LA ROSE DIOR COLLECTION
Yellow gold, pink gold, white gold and diamo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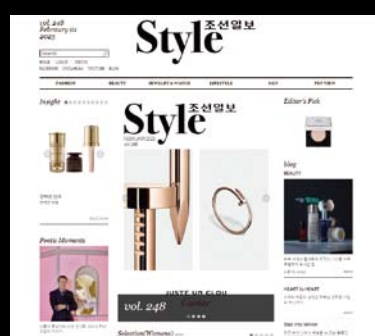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Issue.249 March 2023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경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j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한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선비 분해·재판 리은 인쇄 | 타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스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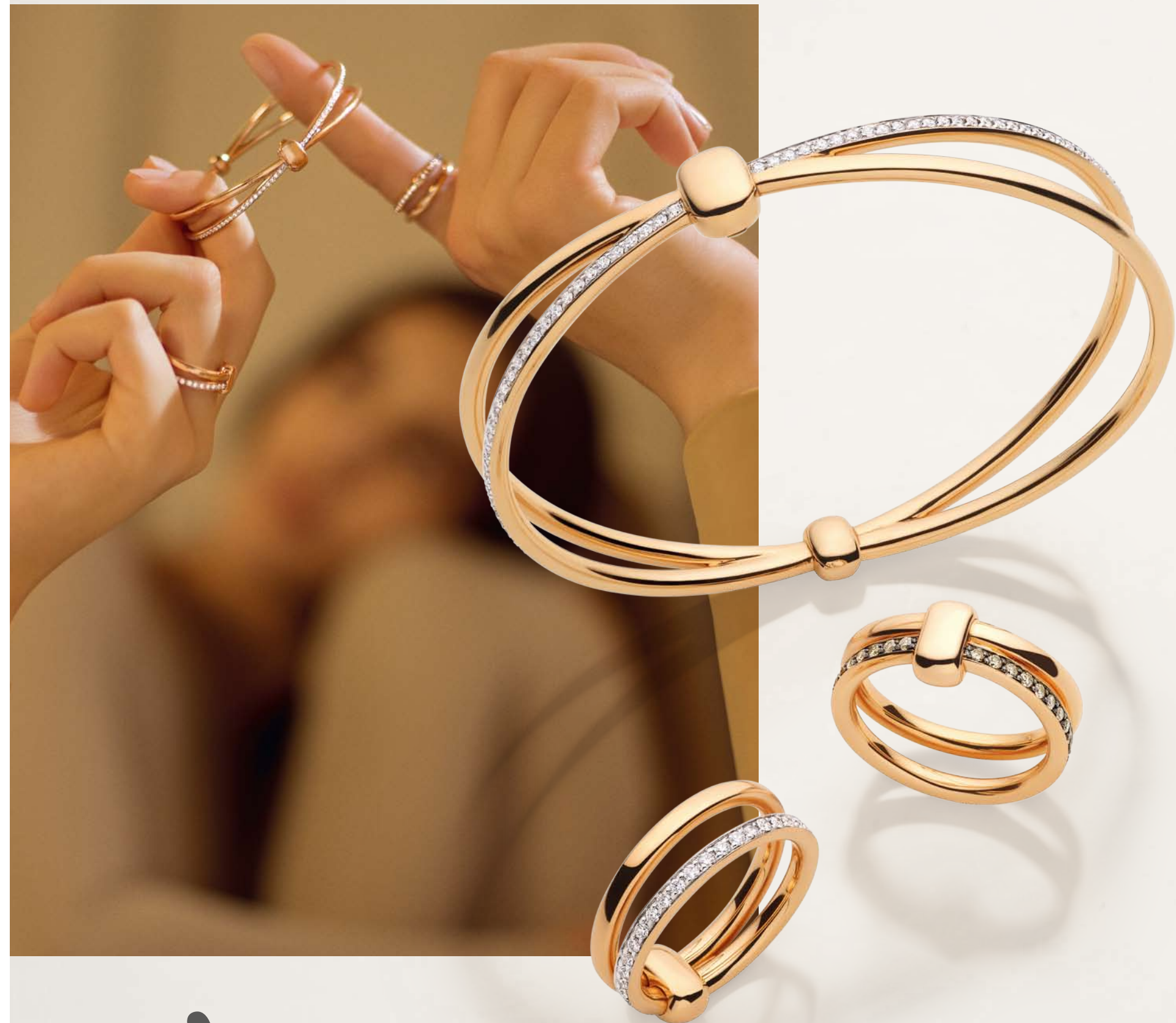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
com

〈스타일 조선일보〉홈페이지는 통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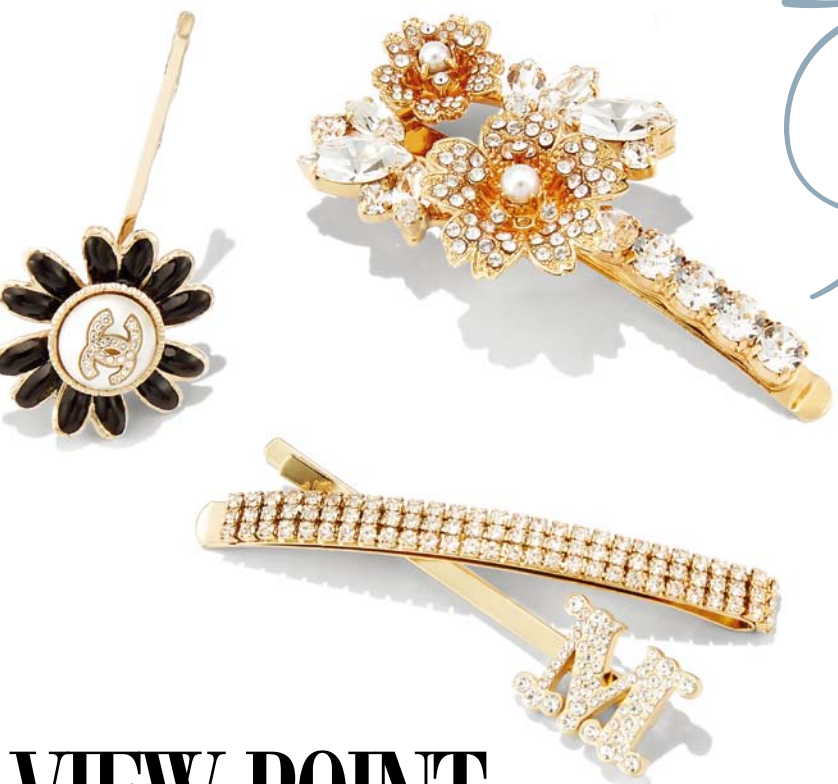
THE POMELLATO TOGETHER COLLECTION INSPIRED BY MILAN



Pomellato

MILANO 1967

CLIENT SERVICE CENTER · 02 3143 9486



VIEW POINT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 때 머리를 정돈해줄 뿐 아니라 목에 포인트를 더해줄 헤어핀,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크리스탈로 파베 장식한 M 로고가 돋보이는 브랜디 시그니처 헤어 클립 세트 가격 미정 **막스마라**, 문의 02-511-3935, 귀여운 꽃모티브 중앙에 사텔 CC 로고로 포인트를 준 헤어핀 가격 미정 **사텔**, 문의 080-805-9628, chanel.com, 자카드식 메탈 소재로 인성하고 착용 가능하며, 화려한 크리스탈과 비즈 장식으로 우아함을 더한 RV 부케 스트라스 펠 헤어 클립 87만원 **로저 비비에**, 문의 02-3438-6268,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성정민** 아사스트리트 **신정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POWER IMPACT

시그니처인 플루 가레, 피코 스타드의 기하학적 요소와 텍스처의 대비를 활용해 리듬감과 강렬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주얼리 컬렉션인 클라쉬 드 까르띠에에서 새로운 컬렉션을 공개했다.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볼륨감으로 강렬한 인상을 부여하고, 자신만의 개성 있는 룩 연출을 도와주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평기한 스타일과 독특한 감촉을 통해 화이트 넘치는 방식으로 대담함과 섬세함을 표현한 이번 컬렉션은 좀 더 과감해졌는데, 파리의 돌담길을 연상시키는 플루 가레의 사이즈 및 세팅을 2배로 키워 입체감을 강조해 화려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보적인 입체감과 대조미가 돋보이는 새로운 클라쉬 드 까르띠에 컬렉션은 링, 브레이슬릿, 네크리스, 이어링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877-4326



사텔 부티에서 가브리엘 사텔이 좋아했던 파스텔 트윈드의 컬러에서 영감받아 완성한 2023 브라이팅 컬렉션을 선보였다. 따뜻한 봄날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섬세하게 반짝이는 파스텔컬러로 구성된 사텔의 뉴 컬렉션 아이템을 활용해볼 것. (위부터) 은은한 피치 컬러로 얼굴에 생동감을 선사하는 하이라이팅 블러셔 판타지 드 사텔 7g 8만원, 데일리 컬러부터 메이크업에 포인트가 될 만한 컬러까지 다채로운 구성의 레 가트르 옹브르 68 밀리스 2g 9만원. 문의 080-805-9638



네모의 꿈

모던한 매력의 스퀘어 워치,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거 크로르스 리베르스 클래식 스몰 듀엣** 34.2x21mm 사이즈의 스틸 케이스에 알 · 뒷면으로 돌려 사용 가능한 듀얼 다이얼이 매력적인 워치 1천2백10만원대, 문의 1670-1833 **에르메스 워치 난투켓** 슬림한 17x23mm 사이즈의 로즈 골드 케이스 한쪽에 다이아몬드 65개를 세팅해 모던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더한 워치 1천만원대, 문의 02-542-6622 **까르띠에 탱크 루이 까르띠에 워치** 33.7x25.5mm 옐로 골드 케이스에 블랙 레커 다이얼과 옐로가이트 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모던하고 시크한 매력을 준다. 1천만원대, 문의 1877-4326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성정민** 아사스트리트 **신정임**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핑크



다이아몬드의 최강자가 되기 위한 티파니의 무한한 노력의 뜻깊은 결과가 이어졌다. 2023년 2월 15일은 1백85년 역사의 세계적인 주얼리 하우스 티파니(Tiffany & Co.)의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바로 이날, 호주 아가일(Argyle)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마자람으로 채굴된 희귀 핑크 다이아몬드 비스포크 큐레이션을 인수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서동주 캄벌리(Kimberley) 지역의 동쪽에 위치한 아가일 다이아몬드 광산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핑크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1983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운영되다 현재는 폐광한 상태다. 아가일은 마자람 채굴 기간에 발견된 작은 다이아몬드 저장고를 보유하고, 2022년부터 티파니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왔다. 독점 위탁 대상으로 티파니가 선정된 배경에는 다이아몬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티파니의 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티파니는 2023년 봄부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티파니 하이 주얼리 이벤트에서 한정된 기간 아가일 핑크™ 다이아몬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향후 캔슬 컬렉션과 블루 북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전체 아가일 핑크™ 다이아몬드 중 티파니 컬렉션(Argyle Pink™ Diamonds: The Tiffany Collection)은 티파니 다이아몬드 인증서와 함께 아가일 핑크™ 다이아몬드 인증서를 발급한다.

봄의 왈츠

자연에서 영감받아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부여한 주얼리 컬렉션으로 늘 우리를 살레게 하는 반클리프 아펠에서 삶을 향한 긍정적인 비전을 구현한 럭키 스프링 컬렉션을 선보인다. 올해는 네 가지 작품으로 구성했으며, 섬세한 비즈와 강렬한 컬러로 컬렉션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든다. 특히 꽃으로 다가가는 무당벌레를 형상화한 비트윈 더 핑크 링은 다테일하면서도 우아한 표현이 돋보인다. 찬란한 카날리언과 질은 블랙 오크스로 무당벌레를 완성했으며, 섬세한 무지개빛을 드러내는 화이트 머더오브펠로 매화와 은방울꽃 봉오리를 연출해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반클리프 아펠은 이 귀여운 파스로 새로운 시작과 다가오는 봄을 알렸다. 문의 1877-4128



공간을 채우는 향

인테리어를 바꿀 수 없다면 나만의 취향이 가득 담긴 향으로 공간을 바꿔볼 것.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논픽션 섀도 캔들 피스 토크** 6개의 굵을 따서 함께 위로하는 듯한 향의 캔들 200g 7천8천원, 문의 1666-7891 **호열 도슨 디퓨저 더 시크릿 세션** 산뜻한 꽃향기와 초록빛 잎사귀의 상쾌함이 조화를 이루는 라이트 플로팅 향의 디퓨저 250ml 7천원, 문의 02-3779-7244 **봉봉양 오렌지 블라썸 홈 프래그런스** 식물성 일교율로 만들었으며, 꽃향기와 감귤류 향을 혼합해 은은한 향을 풍긴다. 100ml 11만5천원, 문의 02-3444-3356 **아스타에드 발라트 남체바자르 인센스** 최고의 인센스를 제작하는 고베 아스타에서 만든, 미끈 건조와 담백 연기 향이 어우러진 인센스 스틱 125pcs 8만원, 문의 02-3446-4322 포토그래퍼 **박태종** 에디터 **성정민** 아사스트리트 **신정임**



PERFECTLY FORMED

계절이 바뀌면서 산뜻하게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더없이 좋은 아이템은 바로 신상 백이다. 랄프 로렌 컬렉션에서 2023 봄 시즌을 맞이해 이 계절과 딱 어울리는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백을 선보인다. 부드러운 카키 스킨 소재로 제작했으며, 고급스러운 은은함을 선사하는 브라운 컬러는 물론 메탈릭한 RL 모티프, 페미닌한 실루엣으로 여성스러운 스타일 속에 포인트가 되어줄 것. 아가에 이트레코 시대의 건축 디자인에서 영감받은 세련되고 클래식하면서도 산뜻한 다테일은 현대적인 미학을 선사하며, 어느 룩에나 포인트가 되어준다. 탈착 가능한 크로스 보디 스트랩과 외부의 슬립 포켓, 내부의 패치 포켓으로 실용성까지 겸비했다. 2백50만원, 문의 02-3467-6560



THE PIONEER

최초의 모던 다이아몬드 워치로 불리는 블랑팡의 피르티 패덤즈. 탄생 70주년을 맞이해 혁신적인 다이아몬드 기념 워치를 선보이며 재탄생을 일렷다. 다이아몬드 수증 탐험을 위해 제작된 이 제품은 전 세계 선구적인 다이아몬드 해빙대가 전문 시간 측정 장비로 선택됐을 만큼 성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방수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견고한 실 크라운 시스템,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빛을 발하는 인디케이션과 대비되는 다크 컬러 다이얼, 단방향 회전 베젤, 항자성 보호 기능을 갖췄다. 덕분에 수증 탐사를 하는 수많은 다이아몬드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다. 문의 02-3467-8426





Selection *for her*

필드가 더 즐거워지는 스프링 골프 룩. photographed by **kim say yun**



pink
blossom

꽃이 만개하는 봄, 소녀 감성을 한껏 북돋아줄 로맨틱 주얼리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유류터) **프래드 프리더 우먼 클레어리니** 형 황태자 골드와 핑크 골드 소자에 2.23카트의 하트 컷루비콘다이트를 세팅해 사랑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며, 1.77카트의 브라운 컬러 다이아몬드를 파테르 세팅했다. 문의 07-4732-0479

알파토 누스 베일리 18K 로즈 골드 총 0.57카트의 38개 다이아몬드로 세팅해, 로즈 카펫과 칼라디노 화이트 크리스탈 피터링과 오그르손의 네덜의 벨벳, 매튜 아폴로네티에 얹혀져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가격 기준, 문의 02-3143-9466

리베르타 메우 부버클로르에 아메리 다이아몬드 칼라기 마운틴을 그늘지는데는 일로우 색, 0.99카트의 로즈 캐시 다이아몬드와 총 0.88카트의 34개 스파이아를 정장화해 세팅했다. 3천5백만엔대, 문의 1877-4128

불가리아 디바스 18K 로즈 골드 에디션 2호로 시애틀, 루피,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카루비올 유망석과 옅은 파란색 하마하이라온을 오아시스에 연못한 핀트로 디자인을 장식해 2014년, 문의 02-2066-0170

세인트 피터스 대성당 핑크 골드 에 얹어진 한복날 거울을 장식, 2카트를 중심으로, 0.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세팅하고 경향물 무늬를 만든 기법 사용, 문의 02-3380-0104

소피아 스트레이츠 레이스 나비르 나비의 스니그스나트 레이스 새겼을 확률 높은 모티브의 네크스루, 로얄핀트 패턴을 발산한다. 31개의 패터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심세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6,855만엔, 문의 02-6905-3390

새 주 드 라모르 세팅한 대칭 결을 의하며, 메일 오브 18K 핑크 골드에, 0.1캐럿의 메릴보네토 다이아몬드는 1카트 무게, 알몸을 초회절로 세팅한 것은 2만엔대, 문의 02-3442-3359

다이아몬드 **유저지**

Mona(Museum of Old and New Art)를 가다(상)

체험 경제 시대, 別난 매력을 품다

남반구의 거대한 섬나라 오스트레일리아 최남단에 자리한 태즈메이니아주(州)는 남극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탓인지 아주 이른 여행지로 각인되어 있지는 않다. 전체 면적의 40% 가까이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풍요로운 '자산인 데다 서안 해양성기후의 영향으로 날씨가 따스하고 온화한 편이고 '죽기 전에 가봐야 한다'는 빼어난 트레킹 코스와 해변을 지녔는데도 말이다(물론 오지 탐험가나 트레커들 사이에서는 명성 높다). 워낙 광활한 땅덩어리를 소유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작지만 면적이 제주도의 34배(62,409km²)나 되는데, 인구는 고작 50만 명 남짓하다. 그래서인지 예전 여행을 보면 도시의 활기를 사랑하는 이방인들에게는 태즈메이니아의 주도(州廳)인 호바트에 가도 '지나치게 한산하다는 푸념이 나오곤 했다. 그런데 2011년 호바트에 모나(Mona)라는 복합 공간이 생기면서 문화 예술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한 천재 괴짜의 발상에서 비롯된 이 독특한 아트 센터의 등장이 호바트를 지구촌 예술 애호가들의 또 다른 성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별나게 튀면서 매혹이 넘치는 모나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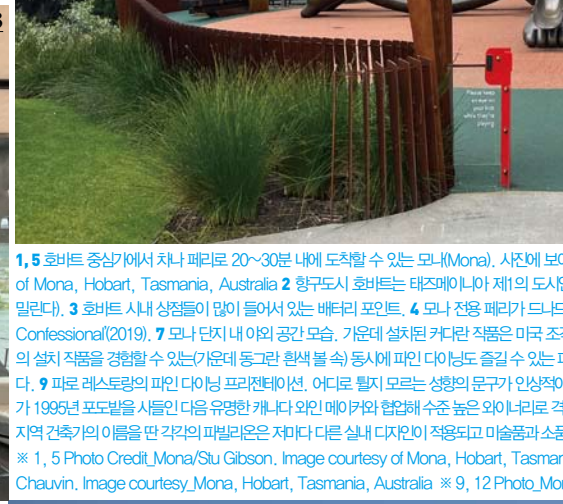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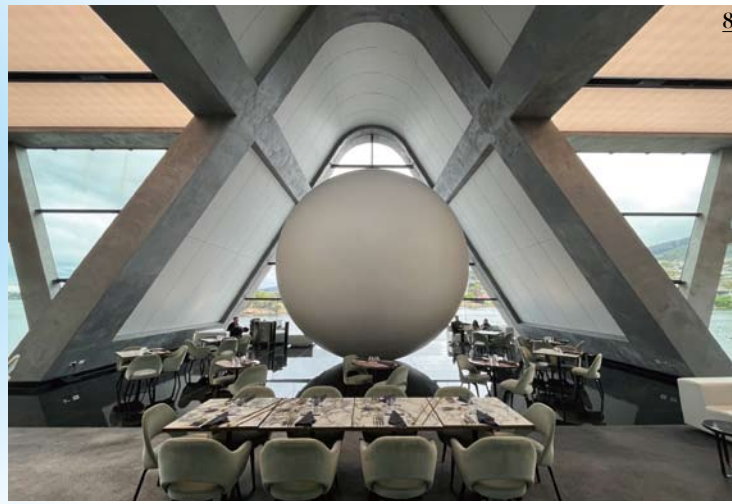


필자가 자못 긴 여정 끝에 호바트를 찾은 건 오스트레일리아 현지에서 한여름으로 치닫기 전 적당히 날씨가 좋은 지난 11월 말이었다. 서울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 시드니로 가서 시드니 공항 근처에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 다시 짧은 비행을 거쳤는데 반박이었고, 그렇게 도착한 호바트 공항도 꽤나 복잡해졌다. 각국이 저마다 엔데믹을 선언한 이래 항공편은 정상 궤도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경을 넘어보고자 하는 여행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난 탓에, 지난해 세계 어디를 가나 흔히 볼 수 있던 '수급이 어긋난 풍경'이었다. 그래도 주도(州廳)인 호바트 시내의 유유자적, 느릿느릿 돌아다니기 딱 좋은 낮은 유동 인구 밀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에서 따로 떨어져 남단에 자리하고 있는 섬인 데다 태국적 자연미를 거의 그대로 품은 듯한 천혜의 풍경 때문인지 태즈메이니아는 언뜻 제주를 떠올리게 했다. 때 묻지 않은 공기, 차분한 분위기와 그들만의 문화가 느껴진다는 점에서도 살짝 닮은꼴로 다가왔다. 물론 태즈메이니아주(州) 면적은 제주와 비교 불가(제주의 약 34배)지만 말이다(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정작 가장 작은 주에 속한다니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나라의 덩치를 새삼 깨닫게 된다). 필자의 목적이지만 모나(Mona)는 호바트 도심에서 페리나 자동차로 30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베리데일(Berriedale)이라는 마을에 터를 잡고 있다. 바로 가려던 호바트 중심가의 프랭클린 부두로 향해야 했겠지만, 그날은 모나가 문을 닫은 날이었던 터라 시내 구경을 택했다. 개인적으로는 지구촌에서 손꼽을 만

큼 맛난 커피를 섭렵하며 요가를 한 뒤 공원, 미술관 등을 돌아다니며 역사적 자취도 훑어봤다. 태즈메이니아는 1642년 아벨 타스만(Abel Tasman)이 발견했지만 두 세기 동안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다가 프랑스가 남극 탐험을 위한 기지 후보로 노리수를 두자, 1788년 이미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에 진출을 하고 있던(1788년 1월 자국의 죄수들과 군인 등으로 이뤄진 선단을 이끌고 시드니항에 도착했다) 영국에서는 부랴부랴 이주민을 보냈다. 역시 죄수와 교도관 등이 주가 되는 유형(刑) 식민지로 낙점됐기에 태즈메이니아 역시 무지비한 찬탈의 희생양이 됐고, 동떨어진 지리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더 소외되고 무시를 당하는 수난도 겪어야 했다.

호바트의 풍경과 브랜드 인지도를 비싼 '아트 스페이스'의 탄생 이렇듯 주로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휴양지로 삼거나 열혈 트레커들이 찾는 '숨겨진 보석' 같았던 변방의 태즈메이니아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밀리지 않을 만한 세련미를 갖춘 문화 예술 플랫폼이 생겨난 건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다. 그것도 정부 같은 공공 차원이나 대기업 오너가 아니라 태즈메이니아의 서민 가정에서 자라나 자수성가한 개인이 주도해 세운 사립 미술관이라니, 세인의 이목을 끈 게 당연했다. 더욱이 그 설립자가 모나에 쏟아부은 수천만 달러의 자금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돈을 뿌리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뉴스를 뜨겁게 장식할 만했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인 데이비드 월시(David Walsh)는 1961년생으로 태즈메이니아 데

학(University of Tasmania)에서 수학과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는(중퇴) 친구들과 도박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이 시스템이 거의 타짜의 솜씨에 버금갔는지 '책판' 퍼레이드를 이어가며 큰돈을 벌어들인다. 이 '크루'에게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 출입 금지령이 내려지자 경마 등 다른 판으로 옮겨 또다시 목돈을 낚아챈다. 이 정도면 그저 흔한 세기의 도박꾼이나 특이한 자산가 정도로 볼렸을 테지만, 그는 남들이 보기에는 의외의(?) 노선을 택한다. 이번에는 '예술'에 올인한 것이다. 자신이 성장한 마을 인근에 일찌감치 땅을 사두고 미술관과 와이너리를 만든 그는 대대적인 레노베이션을 거쳐 2011년 1월 모나를 탄생시킨다. 'Museum of Old and New Art'라는 명칭이 말해주듯 고미술, 유적과 현대미술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와이너리, 양조장, 미식(레스토랑), 숙박 시설 등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이다. 전 세계의 미술 애호가, 미식가, 트렌드세터의 발길을 호바트로 끌리게 한 '잇(G) 스페이스'의 등장이었다. 혹자는 이 지점에서 그저 예술과 식도락, 건축의 조합만으로 이 변방의 아트 스페이스가 그렇게까지 부각될 일인가 싶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그런 필자도 지난 선임집이기도 했다). 아마도 개관할 당시부터 'Sex & Death'라는 주제에 현정하는 미술관임을 노골적으로 명시한 면모를 위해서 동물 사체 전시라든지 신성모독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의 수집같은 그간의 이력 탓에 '시선 끌기 수법'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필자에게도 없지 않았다.



기아함과 재기 발달함, 그리고 위트가 공존하는 아트 센터 그런데 짧았지만 밀도 높은 모나로의 여정은 단순히 영민한 전략을 넘어서 체험 경제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 부합하는 브랜딩의 정수를 느끼게 해줬다. 호바트 중심가 부두와 모나를 오가면서 방문객들에게 별천지를 누비는 감흥을 주는 페리(ferry) 라이드부터 시작해 고층 건물 없이 지하로 계속 파고들어가는 듯 독특한 전시장 구조, 시원시원하게 배치된 야외의 작품을 위해서 뮤지엄 본관의 작품에 도 이렇다 할 레이블링(labeling)을 반영하지 않아 '편견과 편향'을 차단하는, 네모반듯하고 하얀 화이트 큐브의 정형성이 거의 부재한 실내 디자인이 차별된 경험을 선사한다. 또 은밀한 동굴이나 살롱 같은 공간에 '19금 콘텐츠'를 비롯해 '하드코어' 현대미술 작업이 여기저기 눈에 띄지만 동시에 때로 위안과 치유의 마법을 건네는 명상적인 작품(예컨대 파로라는 파인 다이닝 공간을 둔 전시장 건물에서 빛의 대가로 꼽히는 제임스 터렐의 유일무이한 작업을 접할 수

있다)의 존재는 묘한 시너지를 내기도 한다. 뻔한 듯 뻔하지 않다. 여러모로 여유가 된다면 전시만 보는 데 그치지 말고 단지 내에 8개만 존재하는 숙박 시설인 '모나 파빌리온'을 경험해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지역 건축가에 영감받아 저마다 다른 이름이 붙은 이 파빌리온들은 모나 결을 흐르는 더렌트(Derwent)강을 바라보며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숲속의 작은 요새 같은 오라를 풍긴다. 숙소에는 모나의 2011년 초 개관전<모나니즘(Monanism)>과 동명인 소장품 설명서를 비롯해 데이비드 월시의 면면을 엿볼 수 있는 여러 아이템이 구비되어 있다. 와이너리 탐방은 '덤이라고 하기에는 매력이 흘러넘치므로,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면 와인이라도 맛보기를 추천한다(모나의 주 수입원인 자체 와인 중에는 1잔이면 치사량에 가까운 필자로 하여금 거의 1병을 비우게 한 놀라운 경우도 있었다). 2011년 오픈한 이래 모나를 찾은 방문객은 어림잡아 수백만 명에 이른다. 팬데믹 전 기준으로(코로나19는 당연히

태즈메이니아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모나도 한동안 문을 닫았다) 1억3천만 달러가 넘는 경제적 이익을 불러왔다고 추산되며(2017~2018년) 당시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인원도 1천3백 명 규모로 추정됐다. 작은 도시에 창출했다는 점에서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뮤지엄에 곧잘 비견된다. 물론 수치에서는 빌바오에 밀리겠지만 '구겐하임'이라는 브랜드를 등에 업지 않았다는 점과 지리적 접근성의 열세 등을 감안하면 '모나 효과(Mona effect)' 역시 사뭇 경이롭다. '애정'하는 자신의 고향에 지속 가능한 '신물'을 공급하면서도 비즈니스 브랜딩에서도 승승장구하는 데이비드 월시에 '천재 괴짜 사업가'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월시의 컬렉션 가치가 벌써 1억 달러 이상이라는 보도도 나온 걸 보면 그의 '타짜' 감각은 미술품 투자에서도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 싶다(모나의 주요 소장품과 흥미진진한 기획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자세히 다루겠다). 글 **고성현**



Back on Track

코로나19의 장막에서 물러코스타를 타는 듯했던 아시아의 아트 신이 오랜만에 정상 궤도에 들어서는 모양새다. 팬데믹으로 급제동이 걸렸던 2020년을 제외하면 제법 선망하거나 외려 더 뜨거워지기도 했던 아트 열기로 쓸쓸한 이력을 누렸지만, 아무래도 물리적 이동의 제약으로 각국의 방문객들로 북적거리는 축제 분위기는 목격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올해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연초 싱가포르에서 첫 회를 맞이했던 아트 페어 아트 SG(ART SG)를 필두로 아트 페어 세계의 파워 브랜드인 아트 바젤 홍콩(3월), 우리나라가 내세우는 예술제인 광주비엔날레(4월) 등 현대미술계의 글로벌 행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경의 빗장이 많이 풀리면서 다국적 축제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3년 여 전, 이른 봄을 맞이하는 지구촌 분위기는 그야말로 뒤숭숭하고 암담했다. 코로나19의 강타로 대다수가 발이 묶이고 국내의 할 것 없이 행사가 줄줄이 어그러지거나 기약 없이 미뤄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미술 시장도 마찬가지였다. 적어도 그해 상반기 행사들은 여지없이 가혹한 운명을 견뎌내야 했다. 그런데 팬데믹 2년 차인 2021년에는 온도가 달라지면서 '순풍이 분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2022년에도 그 기조가 이어져 미술계는 출중한 아트 페어와 경매 실적, 전시 관람 열풍 등으로 여러모로 함박웃음을 짓거나 즐거운 비명을 질러댔다(물론 나라마다, 도시마다 온도

차는 있었지만). 시장에는 엄연히 사이클이 존재하는 데다 글로벌 악재도 많은지라 올해 전망을 낙관하기는 솔직히 힘들다. 하지만 훨씬 자유로운 이동 환경 덕에 다국적 축제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여기저기에서 펼쳐지고 있기에 달력을 유심히 들여다볼 이유는 충분한 듯하다.

싱가포르부터 홍콩, 광주, 부산, 타이베이까지... 아시아권 글로벌 미술 행사 페어이드

올봄,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미술 애호가들의 이목을 잡아끄는 '대어'는 아무래도 3월 21일 프리뷰 기간이 시작되는 아트 바젤 홍콩이다. '아트 바젤'이라는 최강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글로벌 행사의 아시아 플랫폼으로서 다국적 방문객을 제대로 맞이하는 게 무려 4년 만이기 때문이다. 아트 페어 규모(32개국 1백77개 갤러리) 자체를 보면 팬데믹 전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규모 설치 작업의 미학이 돋보이는 '인카운터스(Encounters)' 부문을 비롯해 컨버세이션, 필름 등 기존 페어의 모든 특별 섹터가 다시 돌아오는 구성이 반갑다. 올해의 인카운터스 부문에서는 13개 설치 작품을 전시할 예정인데, 산업용 트롤리와 폐기 식물 등을 활용해 여성 노동자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자파람(Jaffa Lam)의 장소 특정적 작품 '트롤리 파티(Trolley Party, 2023)', 잘게 파쇄된 유로화 지폐가 유통되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각 설치 '빗물 속 눈물처럼(Like Tears in the Rain, 2023)' 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의 김홍석 작가(국제갤러리)는 노동의 가치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탈을 쓴 마네킹 조각 '침묵의 고독(2017~2019)'을 인카운터스에서 선보인다. 늘 그렇듯 아트 페어 기간에는 도시 곳곳에서 열리는 '장의' 전시가 더 기대를 모으기도 하는데, 올해는 더 그럴 듯싶다. 팬데믹 여파로 그간 홍콩을 찾지 못했던 해외 방문객들로서는 현대미술관 M+의 진면목을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홍콩 정부 차원에서 매립지를 매머드급 문화 예술 지구로 탈바꿈시킨 시주릉 문화 지구의 핵심 콘텐츠인 현대미술관으로 어마어마한 컬렉션과 기획전을 뽐낸다. 명실공히 홍콩의 새 랜드마크로 떠오른 M+에서는 현재 글로벌 블루칩 작가 구사마

야요이(Yayoi Kusama) 대형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아트 바젤 홍콩 2023 기간에는 M+ 파사드에 세계적인 영상 작가 피넬로티 리스트(Pipilotti Rist)의 '너의 믿음을 건네줘(Hand Me Your Trust)'가 상영될 예정이기도 하다. 오는 4월 7일에는 광주비엔날레가 개막한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광주비엔날레는 상업 플랫폼인 아트 페어와 달리 점예한 동시대 이슈를 진지하게 다루는 국제 미술제로, 우리나라의 대표 비엔날레. 이번 행사는 영국의 대표적인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의 이숙경 국제 미술 수석 큐레이터가 예술 총감독을 맡았는데, <도덕경> 78장 '유약어수(柔弱於水)'에서 차용한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계라는' 주제를 내세운다. 전환과 회복의 가능성을 품은 물을 은유이자 원동력, 방법으로 삼고 이를 통해 지구를 저항, 공존, 연대와 돌봄의 장소로 상상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79명의 다국적 작가가 참여하는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메인 전시관을 비롯해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예술공간 집,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 도시 곳곳에서 펼쳐진다(7월 9일까지). 5월에는 부산과 타이베이에서 글로벌 아트 페어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네 항구도시 부산의 열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하는 아트 부산이 벵스코(BEXCO)에서 5월 4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나흘간(7일까지) 이어지고, 5월 중순에는 타이베이에서 당다이 아트 페어(Taipei Dangdai)를 선보이는 일정이다. 각 도시가 내로라하는 행사가 열리는 시기와 맞물려 여러 콘텐츠를 버무린 잔치를 벌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에, 봄맞이 예술 기행을 떠날 계획을 세워 봐도 좋을 형상이다. 글 **고성연**

1 올해 아트 바젤 홍콩 기간에 M+에서 소개될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영상 작가이자 감독 피넬로티 리스트(Pipilotti Rist)의 커미션 영상 작업 'Hand Me Your Trust'(2023) 스틸컷. M+는 홍콩 정부 차원에서 매립지를 매머드급 문화 예술 지구로 탈바꿈시킨 시주릉 문화 지구의 핵심 플랫폼인 현대미술관으로, 피넬로티 리스트의 영상 작업은 M+ 파사드를 통해 상영될 예정이다. Commissioned by M+ and supported by Art Basel and UBS, 2023 © ProLitteris Photo,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 제공, 하우자렌하우스 2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전경. 오는 4월 7일 공식 개관하는 광주비엔날레의 주제전 제목은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계>. 3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출품작인 차이저웨이(Chaiwei Tse)의 나선형 향인트라 - 반바싱경(2014). 나선형 향 3점, 각 작품 150cm, 작가 - 타이베이 TKG+ 제공, 타이베이 TKG+ (우리는 무에서 뱀뱀 뿜어 왔다)전 설치 모습, Photo, Steve Hung. ※ 2, 3 이미지 제공, 광주비엔날레 4 팬데믹 탓에 수년간 미뤄졌던 새로운 아트 페어 아트 SG(ART SG) 1회 행사가 지난 1월 중순 싱가포르를 상경하는 랜드마크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진행됐다. Credit, Marina Bay Sands 5 대만권의 글로벌 아트 페어 타이베이 당다이(Taipei Dangdai) 개최 장소인 타이베이의 난강 전시 센터 풍경(2020). 올해는 5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이미지 제공, 타이베이 당다이



Travel Time

소중한 짐을 보호해줄 탄탄한 소재를 갖춘 것은 물론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한 패션 아이템이 되어줄 특별한 여행 동반자, 트롤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여행을 위한
가방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족 라인 디테일이 돋보이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부드러운 주행감과 저소음 서스펜션 블-베어링 디탈 휠을 갖춘 캐리어 리치몬드 77인9천원 **생소.이트 블랙 라벨**. 문의 02-2007-2943. 런던의 사보이 호텔에서 사소한 구짜오 구짜의 사회 경향과 빈티지 여행에서 영감을 온 GG 수프링 캔버스 소재의 스몰 트롤리 라기 지 4백10만원 **구찌**. 문의 02-3452-1521. 모던하면서도 유니크한 매력을 지닌 기능학적인 프라다 트라이앵글 패턴을 더한 페브릭 소재의 프라다 삼벌 자수 페브릭 트롤리 7백40만원대 **프라다**. 문의 02-3218-5320. 100% 알루미늄에 정교한 빗살무늬를 더해 혁신적인 기능성과 아름다운 외관, 견고함까지 갖춘 19인그리 알루미늄 인터내셔널 캐리어 캐리어 1백45만원 **루미**. 문의 02-539-8160. 리모와 에센셜 트렁크에서 영감을 온 독특한 디자인의 아주르 블루 컬러의 트렁크로, 특대형 크기지만 초경량의 무게를 자랑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트렁크 플러스 아주르 블루 1백70만원대 **리모와**. 문의 02-546-3920. 네이비에 그린 프레임에 대해 클래식함을 완성하고, 여기에 오렌지 컬러 태고와 블루를 매치해 귀엽고 부드러운 느낌을 선사하는 레기테 볼가프 소재 R.M.S 캐빈 50 수트케이스 6백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에디터 **성정민**

티파니 슬럼버제 버드 온 어락 브로치
잔 슬럼버제 컬렉션의 대표적인 디자인으로
완성을 쥐고 있는 새 모양이 시그니처다.
18K 옐로 골드와 플래티넘에 총 57캐럿의 쿠션
컷 지수장을 매치했으며, 몸 전체에는 총 27캐럿,
71개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고, 가장 포인트가 되는
새의 눈동자에는 핑크 사파이어를 매치했다.



티파니 슬럼버제 포 리브스 링

18K 옐로 골드와 플래티넘에 총 5캐럿 오렌지
사파이어를 센터 세팅하고 그 주위로 총 1캐럿,
1백4개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과 특별함을 부여한 링.



티파니 슬럼버제 투 비스 링

센터 스톤인 총 7캐럿의 옐로 사파이어
양쪽으로 마카즈 컷 다이아몬드 4개,
총 0.48캐럿과 총 0.14캐럿의 14개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로 만든 2개의 받음
매치해 워트 있는 디자인을 완성한 링.



티파니 슬럼버제 포 리브스 링

18K 옐로 골드와 플래티넘에 총 3캐럿의
라운드 차보라이트 센터 스톤을 세팅하고,
총 17캐럿, 1백4개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한 송이
꽃을 형상화한 디자인의 링.

티파니 슬럼버제 파쉬 브로치

심아 움직이는 듯 생동감 넘치는 물고기를 형상화한 브로치. (위) 18K 옐로 골드에
총 6캐럿, 67개의 라운드 블루 사파이어를 세팅하고 총 0.69캐럿의 카보숑 컷 터키석
5개를 추가했다. 물고기 의 눈은 총 0.17캐럿, 2개의 핑크 사파이어로 마무리했다.
(아래) 총 7캐럿, 69개의 라운드 블루 사파이어와 총 0.62캐럿, 5개의 라운드
퍼플 사파이어를 세팅하고, 마친크자로 라운드 핑크 사파이어로 눈을 완성했다.



티파니 슬럼버제 에-펠 브레이슬릿

18K 옐로 골드와 플래티넘에 푸른색
에-펠과 총 17.66캐럿, 2백77개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블록을
교차해 완성한 브레이슬릿.

티파니 슬럼버제 아이링

대표 아이링으로 18K 옐로 골드와 플래티넘에
총 1.76캐럿, 72개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잎 모양 아래 탐스러운
열매가 달린 듯한 총 9.09캐럿의 아메리칸 2개를
매치해 청의자와 [고] 워트 있는 디자인을 완성했다.
문의 02-6250-8620 에디터 **성정민**

The Masterpieces

티파니의 대표 컬렉션이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20세기 아티스트 잔 슬럼버제의 유산과
풍부한 상상력을 고스란히 품은 잔 슬럼버제 컬렉션의 하이 주얼리 피스들을 소개한다. 잔 슬럼버제의 탁월한 미적 감각과 티파니 전문가들의 장인 정신으로
완성된 독창적인 스타일과 정교함, 기술적 전문성이 담긴 컬렉션은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함을 선사한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2023 S/S Trend Report

완벽히 포스트 팬데믹 시대로 들어섰다. 대부분의 쇼는 피지컬 쇼로 되돌아오면서 여느 때보다 다채로워지고, 패션 파파들은 생동감 넘치는 축제의 현장을 만끽했다. 유구한 동양 전통 복장에서 영감받은 룩부터 지난해 이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Y2K 패션의 재해석과 과감해진 디테일 요소까지, 2023 S/S 컬렉션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한다.

Trend 1_ Unique details

이번 시즌엔 많은 디자이너들이 라벨, 잠금장치, 바클 등 옷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 포인트를 강하게 준 편. 루이 비통 여성복 쇼에서는 오버사이즈 버클과 지퍼를 사용해 유니크한 룩을 완성했다. 블랙 원피스와 같은 베이식한 아이템에 빅 버클을 달아 시선을 사로잡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그리고 지방시 여성 컬렉션에서는 일리노이 출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매튜 M. 윌리엄스의 아이코닉한 스트리트 스타일을 담은 특별한 디테일을 엿볼 수 있었다. 데님 소재의 브라 톱 중앙에 바클 디테일을 활용해 LA가 연상되는 자유분방함을 표현하기도.

Trend 2_ No more shirts

재킷, 드레스 셔츠, 백타이가 한 세트라는 고정관념은 버릴 것 무섭하게 톡 걸친 재킷이 당신을 더욱 쿨하게 연출해준다. 최근 레드 카펫에 재킷만 걸치고 등장한 티모시 샬라메의 센스 있는 스타일링처럼 말이다. 이미 쇼에서는 셔츠를 입지 않고 넉넉한 핏의 화이트 수트와 스니커즈, 그리고 포인트 컬러 역할을 하는 스카프를 매칭해 감각적인 모습을 연출했고, 폴 스미스 쇼에서는 그려데이션된 뉴트럴 컬러를 가미한 수트에 샌들을 매칭해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런웨이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는 재킷 단추를 하나만 잠근다면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

Trend 3_ Fishnet stockings

관능적인 룩을 연출할 때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던 망사 스타킹이 이번 시즌에는 순수함과 사랑스러움을 대변하는 아이템으로 변신했다. 샤넬 쇼에서는 리본 포인트가 있는 슈즈에 화이트 컬러의 망사 스타킹 디자인을 더해 클래식한 트위드 재킷과도 잘 어울리는 룩을 완성했다. 그리고 디올 여성 컬렉션에선 페미닌한 룩에 블랙 망사 스타킹을 매칭해 러블리한 모습을 표현했다. 발리 여성 쇼에서 선보인, 트임이 있는 네이비 원피스에 실키한 사이하이 글리터 스타킹을 더한 스타일링은 고급스러운 매력을 선사한다.

Trend 4_ Inspired by traditional clothes

동양 전통 복장을 재해석한 겐조의 아우터부터 디올의 코르셋과 부라노 레이스, 그리고 궁정에서 착용한 화이트 스커트를 떠올리게 하는 룩까지, 이번 컬렉션에서는 유독 전통으로부터 새로운 매력을 이끌어내는 현대적인 장인 기술의 힘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구찌에서는 동양의 멋을 제대로 뽐냈는데, 비비드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자수를 넣은 중국식 치파오와 프린지로 만든 페이스 주얼리, 선글라스로 전통미를 강조하면서도 현대적인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는 룩을 감상할 수 있었다.

Trend 5_ Artistic touch

창의성에 대한 패션계의 추종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시즌 보다 젊은 감성의 아티스틱한 터치를 가미한

피스가 눈에 띈다. 발랑의 컬렉션은 자연의 풍요와 우아함을 기리는 회화 작품 같은 피스를 대거 선보였다. 디올 맨 컬렉션에서는 정물화 프린팅을 얹은 파스텔 톤 후디 티셔츠에 쇼츠 팬츠, 그리고 스니커즈까지 매칭해 웨어러블한 에슬레지 룩을 완성했다. 모스키노의 남성복 쇼에서 선보인 아티스틱 피스는 또 어떠한가. 옐로와 블랙 컬러가 대비를 이루는 수트에 여러 라인으로 사람 얼굴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Trend 6_ Hooded dress

40년 전 패션 아이콘인 그레이스 존스가 착용하면서 세상에 등장한 후디드 드레스, 최근엔 케이트 모스, 블랙핑크의 로제, 마고 로비가 레드 카펫에서 착용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번 시즌에는 생 로랑, 알라이아, 페라카모 등 다수의 패션 하우스에서 선보였는데, 공통점은 섬세하게 주름이 진 드레이퍼리 드레스나 우아한 실루엣 드레스에 후드를 결합했다는 것. 생 로랑의 쇼에서는 후디드 드레스의 홀라내라는 듯한 실루엣과 대비되는 블랙 컬러의 시크한 선글라스를 매치해 실험적인 시도를 한 점이 돋보인다.

Trend 7_ Inflation

패션 하우스는 쇼를 통해 일상적인 이슈를 보여주기도 한다. 올해의 키워드는 단연코 인플레이션이 아닐까. 모스키노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의 중의적 해석에 중점을 두어, '부풀려진' 수영장 튜브 혹은 구멍 조끼 아이템을 보여주었다. 특히 튜브를 더한 밝은 옐로 컬러의 숄더 스트랩 라테일 드레스에서 브랜드 특유의 화이트를 엿볼 수 있었다. 버버리 여성 컬렉션 역시 공기를 가득 넣은 튜브와 장난감 디테일을 가미한 룩을 선보였고, 발랑은 보디를 감싸는 벨벳 이브닝 가운에 공기를 뽕뽕하게 넣어 이상화한 여성성을 보여주면서도 고유의 품격과 모더니즘을 표현했다.

Trend 8_ Elegant feather

지난 시즌부터 떠올랐던 Y2K 패션 트렌드가 올해도 계속될 예정. 1990년대 여성 패셔니스타들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었던 깃털 장식도 이번 시즌에는 특유의 핑키함을 덜어내고, 우아한 멋을 강조하면서 남성 룩에도 활용되어 범주를 넓혔다. 샤넬 쇼에서는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클래식한 룩에 일렁이는 듯한 느낌의 깃털 장식을 더해 섬세하고도 페미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발렌티노 컬렉션에서는 뉴트럴 톤 드레스를 같은 컬러의 깃털 장식으로 겹겹이 장식해 유니크한 멋을 더했으며, 같은 스타일을 남성복에도 적용했다. 이처럼 깃털 장식은 앞으로 젠더를 아우르는 패션 키워드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Trend 9_ Layering

한동안 잠잠하던 레이어링 룩이 돌아왔다. 단, 이번 시즌에 주목할 점은 레이어링하는 옷 소재의 범위를 더욱 넓혔다는 것. 팬디는 여러 겹을 덧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테크니컬 오간자, 래커 처리한 자수 장식이 돋보이는 나일론 저지를 선보였다. 스포티하면서도 섬세하며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버버리 맨 컬렉션에서는 레이스의 뒤편을 남성복에 레이어링해 젠더 플루이드의 특징을 표현했다. 관능적인 느낌의 레이스 톱에 캐주얼한 티셔츠를 레이어링한 버버리의 스타일링 팀은 일상 룩에 활용하기에도 제격이다.

Trend 10_ No pants look

몇 해 전부터 하프 팬츠, 쇼츠, 그리고 로 라이즈 팬츠까지, 팬츠 길이가 점점 짧아지더니 올해는 진정한 하의 실종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S/S 시즌 컬렉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보테가 베네타의 17번 룩이 가장 좋은 스타일링 참고서가 될 것. 루스한 핏의 네이비 니트 상의에 하의는 스타킹만 신어 시크한 룩을 완성했다. 실제로 이런 룩을 입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잠시, 이 시대 패션 아이콘 켈달 제너가 너무도 우아하게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큰 이슈가 되었다. 또 발리 쇼에서는 골드 컬러의 재킷, 팬티, 부츠로 강렬한 룩을 완성했고, 에트모 남성 쇼에서는 셔츠를 팬티 안에 넣어서 입는 파격적인 시도도 볼 수 있었다. 에디터 윤지경



Perfect For Now

새로운 시즌, 다시 가슴을 설레게 하는
2023 S/S 뉴 포트폴리오.
photographed by **zo sun hi**

저지 소재의 미니 드레스 가격 미정,
크레이프 새틴 소재의 샌들 가격 미정.
모두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블루 아이링 4만9천원 포함.

(왼쪽) 화이트 코트 소재의 롱 슬리브 탑, 슬리브리스 롱,
플라워 패턴 디테일의 레더 스커트, 레더 아이링 요가기
문보이는 코트 소재의 셔츠, 나파 소재의 앵글 스트랩
팬츠, 쿼터 디테일의 골드 도금 스텔링 실버 아이링.
모두 가격 미정 **보타가 매튜**. (오른쪽) 파넬 나파 코트,
문보이는 울 소재 셔츠, 팬츠, 카프 레더 소재의
앵글 스트랩, 쿼터 디테일의 골드 도금 스텔링
실버 아이링 모두 가격 미정 **보타가 매튜**.





매들 장식의 실버 미디 드레스
8백50만원 구피, 실버 아이
러브 비비에 펄프스 1백34만원
로저 비비에, 실지가롱 이어링
가죽 미장, 크리스탈 라인
스톤 네크리스 1백15만원 모두
올채널비바나, 펄 네크리스 9만7천원
프루타, 질스톤 펄 네크리스
12만9천원 빈티지 할리우드.

(왼쪽) 브라운 프린트 드레스
가격 미정 프라다. (오른쪽)
블루 프린트 드레스, 블랙 이너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왼쪽) 핑크 새틴 드레스 3백만원대, 레더 슬라이트 1백만원대, 파이톤 레더 피코 밴디 퍼스트 70만원대 모두 렌디. (오른쪽) 그린 니트 드레스 8백만원대, 레더 슬라이트 1백만원대, 메탈 이아키프 60만원대 모두 렌디.



갑자 일은 듯 독특한 실루엣의 메이비들 스티밍 미니 드레스, 성세한 레이스 스티킹과 진흙한 앵글부츠를 매치해 경쾌한 느낌을 대했다. 의상 및 소품 모두 가격 미정 루이비통.



(왼쪽) 오렌지 지퍼 장식의 슬리브리스 드레스, 스트랩 샌들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오른쪽) 싱글브레스트 캐주얼 헤어 재킷 5백80만원대, 비디도 롱 1천만원대, 화이트 브라 롱 가격 미정, 캐주얼 데님 스커트 1백50만원대, 화이트 브리프 가격 미정, 블랙 오픈도 펌프스 가격 미정 모두 **미우미우**.

(왼쪽) 패인티드 코튼 트윈드 소재 재킷, 스커트, 스트라스 소재 숄랑백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오른쪽) 핀티지 코튼 트윈드 소재 점프수트, 캐시미어 소재 카디건, 메리제인 하이 부츠, 메탈 소재 이어링, 벨 롱 네크리스, 메탈 소재 롱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헤어 **마준호**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Viva Ivachevska, Dory Kitty, Anabelle Munyezamu, Katrin Hvozdukhina, Dasha Yemialyanava**(Jennifer Management)
스타일리스트 **채원석**

샤넬 080-200-2700, chanel.com
에르메스 02-542-6622
구찌 02-3452-1921
프라다 02-3218-5331
미우미우 02-541-7443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팬디 02-514-0652
돌체앤가바나 02-3442-6888
루이 비통 02-3432-1854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02-549-5741
로저 비비에 02-6905-3370
프루타 02-730-0530
빈티지 할리우드 02-784-2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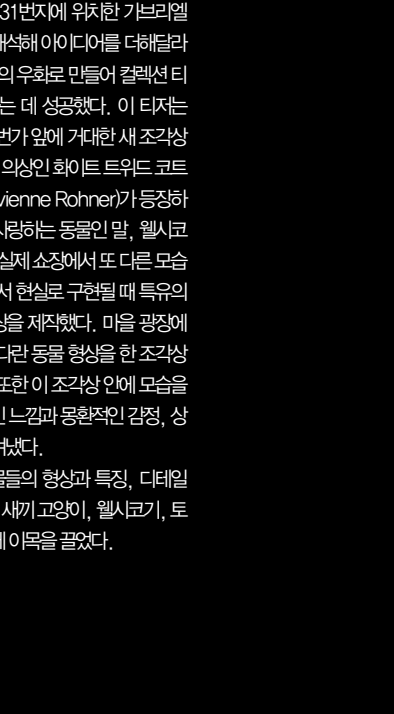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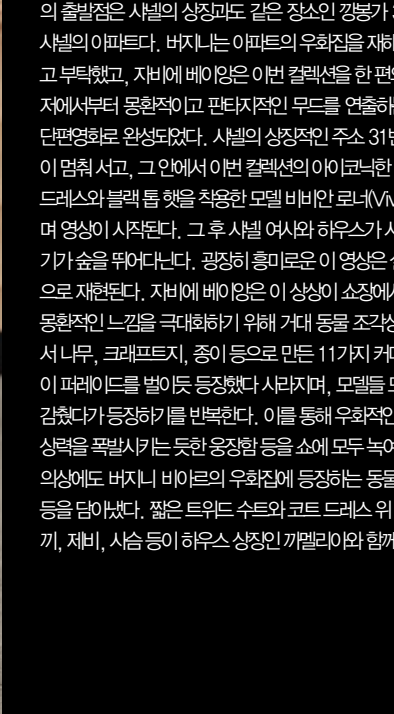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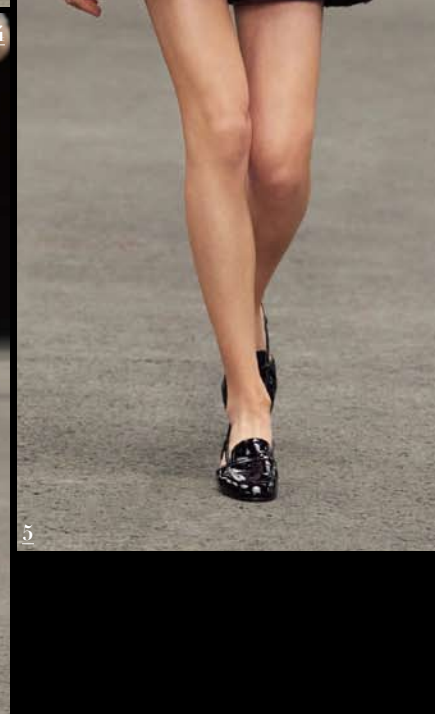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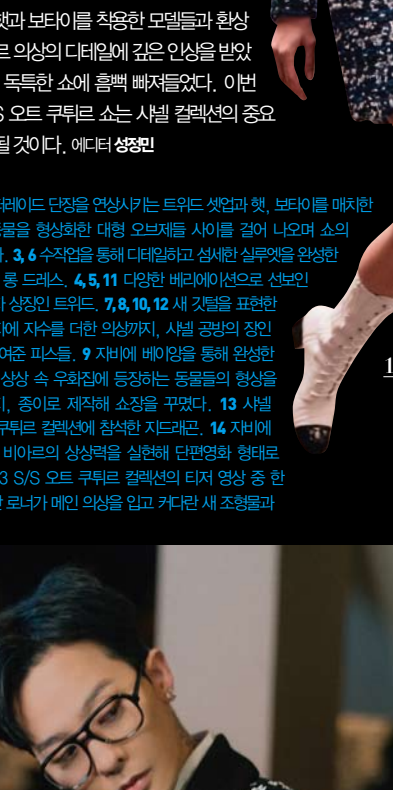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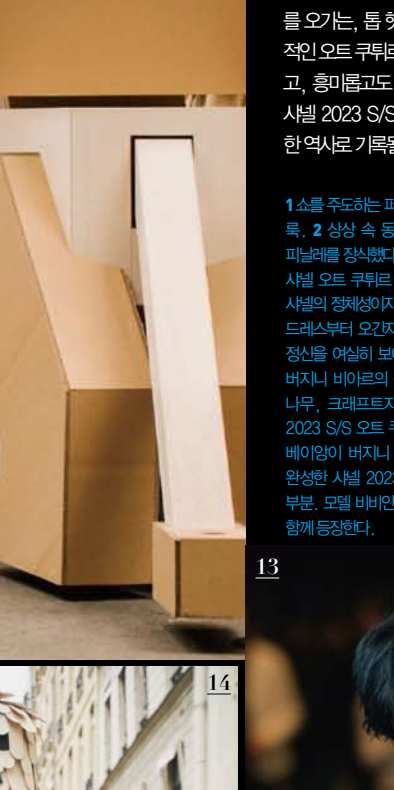


Wings of Fantasy

버지니 비아르의 세 번째 초대를 받은
자비에 베이앙(Xavier Veilhan)과 함께 완성한 샤넬 2023 S/S 오트 쿠튀르 컬렉션.
상징적인 깡뿔가 31번지에 위치한 가브리엘 샤넬의 아파트에서 시작한 샤넬의 새로운 판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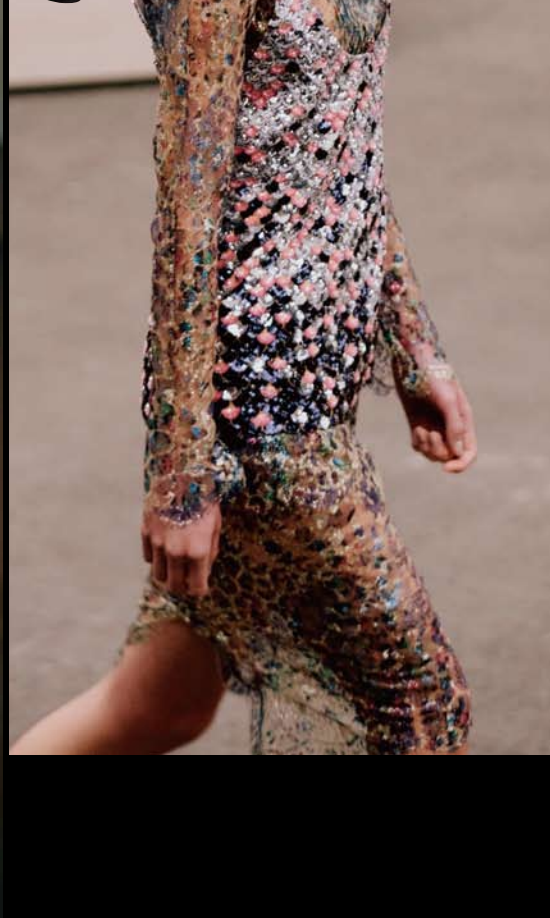


여기에 틸 헛과 나비타이를 중간중간 매치해 모델들을 쇼를 이끄는 파페이드의 일원으로 변신시켰다. 그뿐 아니라 군악대의 우아함에 영감을 얻어 화이트 클러브, 레이스 부츠, 새틴 망토, 플라츠스카트, 더 블레스드 재킷 또는 테일 재킷, 텍사도 셔츠, 시퀸, 쇼츠, 페티코트 등을 오트 쿠튀르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였다. 가볍고 섬세한 드레스와 정교수트는 겹침과 비침, 플리츠, 플리츠, 기느다란 스트랩과 패턴팅한 레이스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오트 쿠튀르만의 장인 정신과 섬세한 디테일을 선보였으며, 실크 툴, 테퍼티, 오간자, 조켓 크레이프, 상티 레이스를 사용해 가벼운 동물들의 털이나 아름다운 자수 등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 티저에 등장한 모델 비비안 로너의 뒤를 이어 요정의 파페이드가 펼쳐지고, 매우 섬세한 재치 자수가 들어간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파블레를 장식했다. 동물들 주인공으로 삼은 우화를 몽환적인 우아함으로 표현한 버지니 비아르의 상상력에 또 한번 감탄하게 되는 2023 S/S 오트 쿠튀르 컬렉션. 이날 전 세계 샤넬 하우스 엠베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한국에서는 지드래곤과 배우 김고은이 참석했다. 엠베서들은 샤넬의 우화와 상상력에 감탄하며 거대한 동물 조각상 사이를 오가는, 틸 헛과 나비타이를 착용한 모델들과 환상적인 오트 쿠튀르 의상의 디테일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흥미롭고도 독특한 쇼에 흠뻑 빠져들었다. 이번 샤넬 2023 S/S 오트 쿠튀르 쇼는 샤넬 컬렉션의 중요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에디터 송민**



2023 S/S 오트 쿠튀르 컬렉션을 위해 아티스트 자비에 베이앙이 또 한번 초대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버지니 비아르의 판타지적 아름다움과 샤넬 오트 쿠튀르만의 아름다운 세계를 독점하고 우아하게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 상상력의 출발점은 샤넬의 상징과도 같은 장신인 깡뿔가 31번지에 위치한 가브리엘 샤넬의 아파트다. 버지니 비아르의 우화상을 재해석해 아이디어를 다화했다고 부특했고, 자비에 베이앙은 이번 컬렉션을 한 편의 우화로 만들어 컬렉션 티저에서부터 몽환적이고 판타지적인 무드를 연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 티저는 단편영화로 완성되었다. 샤넬의 상징적인 주소 31번가 앞에 거대한 새 조각상이 멈춰 서고, 그 안에서 이번 컬렉션의 아이코닉한 의상인 화이트 트윈드 코트 드레스와 블랙 툴 헛을 착용한 모델 비비안 로너(Vivienne Rohner)가 등장하며 영상이 시작된다. 그 후 샤넬 여사와 하우스가 사용하는 동물인 말, 웰시코기가 숲을 뛰어다닌다. 광경이 흥미로운 이 영상은 실제 쇼장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재현된다. 자비에 베이앙은 이 상상이 쇼장에서 현실로 구현될 때 특유의 몽환적인 느낌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대 동물 조각상을 제작했다. 마을 광장에서 나무, 크래프트지, 종이 등으로 만든 11가지 커다란 동물 형상을 한 조각상이 파페이드를 빌어등 등장했다 사라지며, 모델들 또한 이 조각상 안에 모습을 감췄다가 등장하기를 반복한다. 이를 통해 우화적인 느낌과 몽환적인 감정, 상상력을 폭발시키는 듯한 웅장함 등을 쇼에 모두 녹여냈다. 의상에도 버지니 비아르의 우화상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형상과 특징, 디테일을 담아냈다. 짙은 트윈드 수트와 코트 드레스 위 새끼 고양이, 웰시코기, 토끼, 재비, 사슴 등이 하우스 상징인 기렐리아와 함께 이목을 끌었다.

1 쇼를 주도하는 파페이드 단장을 연상시키는 트윈드 셋업과 헛, 보타이를 매치한 툴, 2 상상 속 동물들 형상화한 대형 오브제를 사이를 걸어 나오며 쇼의 파블레를 장식했다. 3, 6 수작업을 통해 디테일하고 섬세한 실크수트를 완성한 샤넬 오트 쿠튀르 롱 드레스, 4, 5, 11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선보인 샤넬의 장례성이자 상징인 트윈드, 7, 8, 10, 12 새 깃털을 표현한 드레스부터 오간자에 자수를 더한 의상까지, 샤넬 광장의 장인 정신을 여실히 보여준 피스들, 9 자비에 베이앙을 통해 완성한 버지니 비아르의 상상 속 우화상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형상을 나무, 크래프트지, 종이로 제작해 쇼장을 꾸민다. 13 샤넬 2023 S/S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 참석한 지드래곤, 14 자비에 베이앙이 버지니 비아르의 상상력을 실현해 단편영화 형태로 완성한 샤넬 2023 S/S 오트 쿠튀르 컬렉션의 티저 영상 중 한 부분. 모델 비비안 로너가 메인 의상을 입고 커다란 새 조형들과 함께 등장한다.



ultimate skin care

겨우내 한파와 맞서느라 지친 피부에 확실한 보상이 필요한 때. 1백17년 전통 스위스 피부 클리닉의 노하우를 담은 발몽에서 원활한 혈액순환과 더불어 속부터 차오르는 수분감을 더해줄 스페셜 뷰티 트리트먼트를 제안한다.

뷰티 홈케어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써보고 싶어 하는 대망의 위시 아이템, 발몽의 프라이밍 리뉴잉 팩, 세계적으로 2분에 1개씩 판매될 정도로 마니아층이 두껍다. 최근 발몽에서는 이런 소비자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해 기존보다 더 큰 용량인 75ml로 리뉴얼 출시했다. 이 제품이 이토록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짧은 케어 시간에 비해 즉각적인 광채와 눈에 보이는 뛰어난 효과 때문. 발몽의 프라이밍 리뉴잉 팩은 '셀룰라 프라이밍 콤플렉스'를 함유해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외부 유해 자극으로 거칠어진 피부가 자생력을 되찾도록 도움을 준다. 또 제품에 사용하는 모든 원료는 스위스의 천연 원료이며, 브랜드만의 43년 전통 셀룰라 DNA 과학기술이 피부 본연의 재생 기능을 촉진한다. 발몽에서는 이 제품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뷰티 노하우를 공개했다. 우선, 매일 아침 피부에 소량을 골고루 도포하고 10분 뒤 미온수를 닦아내 모닝 팩으로 사용해보자. 즉각적인 쿨링 효과와 함께 매끈하고 탄력감 넘치는 피부로 가꿔준다. 특히 피부 컨디션이 유난히 안 좋을 때는 나이트 팩으로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피부에 넉넉한 양을 충분히 도포하고 20분간 방치한 후 세안하면 트러블은 물론 붉은 기가 올라온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탁월하다. 무엇보다 피부 속부터 맑게 정화해주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베이스로도 활용할 수 있다. 베이스 메이크업 전 얼굴에 얇게 펴 발라주면 은은한 광이 돌고, 반 정도 피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자신 내 피부를 위한 특별한 선물

발몽은 뷰티 메디컬 클리닉에서 시작한 브랜드인 만큼 제품을 이용한 케어 서비스 또한 잘 마련되어 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과 롯데백화점 본점 발몽 매장에서는 '발몽 스킨케어 트리트먼트 룸'을 운영한다. 우선 70분 동안 피부 재생과 안티에이징 케어를 해주는 '딥톡스 페이스셜 케어'는 관리받는 동안 두 가지 특수 마스크를 활용해 관리한다. 관리 후 매끈하고 지속적으로 광채를 발산하는 피부를 만날

수 있을 것. 피부 고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90분 케어의 '브랜드 헤리티지 케어 프로그램'은 고객 피부에 맞는 부스팅 앰플과 콜라겐 마스크를 사용하며, 발몽만의 섬세한 셀룰라 코즈메틱 기술을 느낄 수 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발몽의 백화점 매장에서 일정 금액 구매 시 받아볼 수 있다. 문의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 02-772-3299,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02-3438-6046 에디터 **윤지영**

1 피부에 조명을 켜듯 즉각적인 광채와 부드러움을 선사하는 발몽의 프라이밍 리뉴잉 팩 75ml 45만원, 2 발몽 그룹의 수장이자 이티스트 디디에 기쁨의 작품인 '틴자니아에서 온 이보'(Ivo in Tanzania)가 눈에 띄는 롯데백화점 본점 발몽 매장, 3 화이트와 골드 조합의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우면서도 아늑함을 전달하는 트리트먼트 룸.



모든 사진은 (왼쪽) 사진 제공 www.fondationvalmont.com

Bath Break

욕실에 머무는 시간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럭셔리한 욕실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바니스 뉴욕 뷰티 노던 리조트 내추럴 스프링 워터**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사계절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매우 낮은 질산염 수치로 오염되지 않은 노르웨이 프리미엄 워터 330ml 6천원. 문의 1644-3456 **배중 미온자엘라 레플리카 디퓨저 레이저 신데이 오일** 따뜻한 햇살을 받은 깨끗한 칠레 시트의 포근한 느낌을 향으로 담아낸 디퓨저 185ml 15만원. 문의 080-363-5454 **발몽 바디 24 아워** 브랜드만의 칼슘이온 세포 포화력인 K-모이스트 성분은 피부에 막을 형성해 보습력을 끌어올리고 피부를 진정시키며, 빠르게 회복시키는 노화 방지 보디 크림 150ml 18만원. 문의 070-4352-5203 **타타르 도 스킨 핸드 앤 바디 젤** 스킨타타르인 타타르 도 스킨 향을 그대로 담아 사워 시에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핸드 & 바디 젤. 실감할 기쁨이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준다. 200ml 6만8천원. 문의 02-3479-6049 **아베다 스칼프 솔루션 오버나이트 리뉴얼 세럼** 천연 유래 성분으로 탈모를 함유하지 않은 건강한 포플러의 두피 세럼으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어 사용이 간편하며, 두피에 수분감과 영양감을 부여해 두피 건강을 지켜준다. 50ml 6만6천원. 문의 02-3440-2905 **토일렛 페이퍼 뷰티 토일렛 페이퍼 핸드 크림** 촉촉하고 영감이 풍부한 핸드크림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가꿔주는 것이 특징. 아티스트 마우리치오 카발로와 사진작가 피에르파올로 페라리의 예술 출판물에서 가져온 독보적 비주얼의 패키지가 돋보인다. 30ml 5만3천원. 문의 1644-4430 **라부르갓 에센셜 클렌징 오일** 스웨덴 자연에서 영감받아 오랜 연구 개발 끝에 자연 유래 비건 COSMOS 인증 원료로 만든 클렌징 오일로 가벼운 텍스처가 감각적인 리추어를 선사하며,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세정한다. 60ml 4만1천원. 문의 1644-4490 **에디센드 퍼플 프라데리 알 포타라이트 오버 에레이터 바디 워시** 나치 퍼플 브랜드의 대표 라인 프라데리 알의 강도 높은 향을 사워 시에도 즐길 수 있다. 풍부한 파슬리와 백단향을 베이스로 타카나 장미를 얹어 매혹적인 향을 선사한다. 200ml 9만2천원. 문의 02-514-5167 에디터 **성영민**

이티스트 디디에

editor's Pick

베스트 피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스킨케어부터 봄날의 향기로 가득 채울 3월의
뷰티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이도 티크노넨젤 립스틱 #408 하모닉 드라이브**
최근 마스코 해제 발매가 커지면서 립 메이크업에 더 신경 쓰게 된 요즘, 부드럽고
평한 컬러감은 물론, 8시간 정도의 롱 래스팅 포뮬러인 티다.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이 마음에 들었다. 더불어 수분감을 주는 홍화 오일이 들어 있어 떨어지지 않고 촉촉하
게 마무리된다. 3.3g 3293원, 문의 080-564-7700, *by 인턴 에디터 신정민*

비어도 양버림트 카탈 펜슬 길이가 짧은 펜슬 타입으로 휴대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그림감이 좋아 아이아라를 정교하게 그릴 수 있다. 질은 브라운과 바진드를 믹
스한 컬러로 다른 브라운 컬러보다 더 자연스러워서도 오히려 느낌이 연하다.
또 녹는점이 낮아 봄날에 스키장해 다양한 스타일로 활용 가능하다. 2.4g 5만원.
문의 02-3479-1688, *by 에디터 윤지영*

타피니 도 손 하모니 칼렉션 라미테 에디션 튜베루스 샌드 캔들 손가락 하나까
여할 수 없이 자쳐서 퇴근한 날, 샤워 후 커튼은 캔들에서 파는 향은 좋았지만
바탕조 향이 아니라 드링크 같기도. 농축된 퍼플을 사용해 은은한 향이 오랫동안
남는다. 190g 11만8천원, 문의 02-3446-7494, *by 에디터 장미윤*

폴라조이스 칼 진정 모이스처라이저-자복함성 자복함성 피부자민 날씨에 민감해 가
끔 홍조가 올랐을 때가 있다. 민감한 자복함성 피부를 위한 모이스처라이저가 없을
까 고민하던 찰나 폴라조이스의 스키퍼 라이진, 칼 칼렉션을 만났다. 식물성 항산화
성분을 함유해 외부 요인으로부터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피부 컨디션을 더욱 촉
촉으로 케어해주는 것이 최고의 장점. 60ml 4만8천원, 문의 1661-6686
by 인턴 에디터 신정민

아우구스투스 배더 에버브라쉬 프라이머 2023년 토티의 해를 맞아 레미테드 패
키지로 출시한 아우구스투스의 베이스젤, 여러 제품 브라운을 좋아하지 않아 프
라이머 따위는 생략하기 앞섰는데 이 제품을 써본 뒤로 불렀다. 프라이머
이 훨씬 오래가며 피부를 한층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면서도 적당한 느낌이
없어 매우 만족스럽다. 30ml 8233원, 문의 1644-4490, *by 에디터 신정민*

자비니 프록시 리브르 스칸-케아링 캔슬 N95 새끼 손가락 이용해 다스들과
코 옆 어두운 부분에 가볍게 톡톡 발라주었다. 그리고 그 위에 피운데이션을 발랐
다. 드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에디터의 아스트 해브 뷰티 아이템으로 등록 무
엇보다 텍스처가 미세하고 가벼워 수정 메이크업할 때 맞바르기 쉽다. 11ml 5515원
원, 문의 080-801-9500, *by 에디터 윤지영*

로아비 오 드 퍼플 클로브 앤 바닐라 로아비 파인 프로그레스 라에서 이름 그대로
선보이는 향수. 매력적인 스파이시 향과 부드러운 달콤한 바닐라 향이 조화를 이루
는데, 아직 공기 가 차가운 3월에 따스하고 포근하게 감싸주는 듯 풍부하고 친근한
향이다. 선물로도 제격. 50ml 10만9천원, 문의 1644-4490, *by 에디터 장미윤*

다들 뷰티 프레스티지 화이트 라 크림의 휘미러 단 며칠만 발랐을 뿐인데 드라마
틱한 효과를 경험했다. 윗아와 미끈으로 착색된 피부가 눈에 띄게 갱신이 되기
시작한 것. 로아비사이드 휘미러 콤플렉스에 담긴 로즈 그라비 추출물과 화이트
트 로즈 추출물이 피부에 활력과 광채를 선사하고 어두워진 피부를 밝히는 바타
민 C 성분도 강력한 효과를 선사한다. 50ml 가격 미정.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윤지영

리부렛 282 리제-카미팅 크림 스위스의 자연주의에 영감을 받은 리부렛
의 새로운 스키퍼 칼렉션 중 크림 제형의 산데름, 바다와 숲속 등 스위스의 자연에
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해 자극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건 제품이다. 바다
나뭇잎과 블루베리 향이 살짝 나며, 수분감이 있는 크림 제형으로 부드럽게 발려 산뜻
하게 마무리된다. 50ml 9만1천원, 문의 1644-4490, *by 인턴 에디터 신정민*

아우구스투스 배더 더 페이스 크림 마스크 30년 여간의 연구를 통해 피부에서 자
연적으로 발생하는 본연의 활동 분자로 이뤄진 개발 성분 TFC8을 함유한 크림 마
스크. 그래스아지 이질 바르고 자고 일어나니 피부가 매끈해지고 낫빛이 한층 더
환해진 느낌을 받았다. 위스키로 사용해도 좋고, 오바.이트 마스크로도 활용 가
능하다. 50ml 29만4천원, 문의 02-3438-6065, *by 에디터 신정민*

비버드로우 바오발 하이드로겔 투 드롭 앰플 있는 그대로의 본질에서 시작된 출가
변화를 마주하며 건강한 뷰티를 지향하는 비버드로우에서 선보이는 수분 앰플. 수분
이 가득 든 바오발-루 열매 추출물이 들어 있어 촉촉한 것은 물론, 비건 허밀루탄
성분을 담은 텍스처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발린다. 비버드로우 수분 부족으로 파
손된 피부에 몇 방울 떨어 마사지하면 흡수하면 진정 효과를 발휘한다. 40ml 4만3
천원, 문의 1660-1422, *by 인턴 에디터 신정민*

클라리스 포퍼스 라 크림의 이오 40대 중반인 에디터는 눈가 주름도 걱정되지만
무엇보다 명함과 착취함이 신경 쓰이는 건성 피부다. 피부에 영양을 제대로 공급해
주려라 결상하고 만난 올해의 첫 아이 크림으로, 부드러운 텍스처가 미끄러지듯 스
며들어 산뜻하고 편안하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인체와 광채는 덤. 가벼운 플로럴
향도 기분 좋다. 15ml 22만원, 문의 080-542-9052, *by 에디터 장미윤*

메이크업포에비 HD SKIN 메트 팔렛 파우더 파운데이션 1Y04 쿠션과 파운데이
션, 파우더의 장점을 골라 모놀은 완벽한 제품이 탄생했다. 쿠션처럼 푹푹 찍어 바
르면 더. 편하면서도 피부를 매끄럽고 완벽하게 커버해준다. 보충한 미이라지에도
건조하지 않고 지속력이 매우 뛰어나 수정 화장을 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깨끗한 피
부 표현이 가능하다. 11g 6만9천원, 문의 080-514-8942, *by 에디터 신정민*



* 장미윤(40대 중반), 신정민(30대 중반), 윤지영(30대 중반), 장미윤(20대 중반), 신정민(20대 중반), 윤지영(20대 중반)

SHOWROOM

JEWEL & WATCH



에르메스 워치 **케이프 코드 상**
당크로 시대를 초월한 에르메
스 워치의 아이콘, 케이프
코드 워치는 직사각형 안
정사각형이라는 독특한
발상으로 탄생했다. 에르
메스 시계 공방에서 제
작한 악어가죽과 송아
지가죽 스트랩은 현대적
이면서 우아한 멋을 풍긴
다. 다이아몬드 유무에 따
라 27가지 버전으로 출시했
으며, 가벼운 실루엣으로 제작
해 유연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
다. 찰나의 순간을 잊지 못할
시간으로 바꾸고 싶다면 에르메스 워치의 케이프 코
드를 만나보자. 문의 02-542-6622

타피니 **타피니 락** **팝업 스토어 오픈** 1백85년 역사
의 세계적인 주얼리 하우스 타피니가 타피니 락 컬렉
션의 새로운 제품 론칭을 기념하기 위해 팝업 스토어
를 오픈했다. 팝업 운영 기간에 팝업 스토어 및 타피
니 매장에서 타피니 락 컬렉션을 구매할 고객에 한해
무상으로 핸드 인그레이빙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타피니 락 팝업 스토어는 3월 14일까지 신세계백화
점 센텀시티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250-8620



소파드 새로운 캠페인 모델, 에스파 스위스 럭셔리 워
치 & 주얼리 브랜드 소파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캠페인
모델로 글로벌 K-팝 그룹 에스파를 발탁했
다. 새로운 컬렉션, 마이 해피 하츠와 더불어 해피 스
포츠 · 해피 다이아몬드 · 아이스 큐브 · 알파인 이
클 · 프레스스 레이스 컬렉션 캠페인에서 에스파가 지
닌 젊음과 창의성,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채로
게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905-3390



LIFESTYLE

스위로브스키 **뉴 아이코닉 스와** 출시 스위로브스키에
서 브랜드의 상징을 더한 '아이코닉 스와'를 새롭게 선
보인다. 백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뉴 아이코닉 스
와 컬렉션은 깊이 조절 가능한 스프링 링 클로저로 다
채로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아울러 미니멀한
XXS부터 XL까지 사이즈 선택의 폭을 넓혀줌, 로즈
골드와 골드 핑크, 로즈 컬러와 브랜드의 시그니처 컬러
인 옐로까지 총 47가지 색상으로 선보인다.
문의 1522-9065



시몬스 뷰티베스트 1925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흔들
리지 않는 편안함을 선사하는 브랜드 시몬스가 매트
리스 컬렉션, 뷰티베스트 탄생 1백 주년을 기념해 뷰
티베스트 1925 한정판 매트리스를 출시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경영 정신에 따라 뷰티베스트 1925가 판
매될 때마다 제품 가격의 5%를 상사서울병원 소아정
소년센터를 위한 기부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한정판 판매한다. 문의 1899-8182



헬레나 루빈스타인 리-플라스티 리카버리 나이트
크림 전 세계 여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디마 스키키퍼
어 브랜드 헬레나 루빈스타인에서 불철 피부 고민을
해결해줄 리-플라스티 리카버리 나이트 크림을 제
안한다. 피부 탄력에 효과적인 특허 성분 프로실린
™(Proxylane™)을 담아 인테이징 효과를 볼 수 있
으며, 쏘쏘한 밤 피부 텍스처로 끈적이지 않고 실크
럼 부드러운 마무리감을 느낄 수 있다.
문의 080-835-0081

스위스퍼펙션 바디 리카버리 크림 출시 럭셔리 스위스
스킨케어 브랜드 스위스퍼펙션에서 피부를 한층 더 투
명하고 매끄럽게 케어해주는 바디 리카버리 크림을
선보인다. 스위스퍼펙션의 시그니처 성분인 셀룰라

엑티브 아이리시*와 피부
진정 효능으로 잘 알려진 보스
헬로이 검 성분이 들어 있어 자극
적인 외부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
호해준다. 건조하고 따사운 햇빛으로
피부 자극이 많이인 봄날에 보다 피부 관
리가 고민이라면, 스위스퍼펙션의 바디 리카버리 크
림과 함께해보자. 문의 1644-4490

폴라 **국내 론칭** 깊은 역사를 지닌 일본 프레스티지
뷰티 브랜드 폴라가 국내 공식 출시일을 발표했다.
2023년 5월, 롯데백화점 본점에 국내 첫 번째 매장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 예술, 사람의 가치에 기반
한 '아트 오브 사이언스 스키키퍼의 세계관을 만나볼
수 있는 폴라의 인테이징 라인' 바이에(B, A)와 주름
개선에 탁월한 세럼인 링클샷 세럼N을 포함한 폴라의
주요 제품들을 선보인다. 문의 02-759-6748



펜디 **국내 첫 플래그십 부티크, 팔미초 펜디 서울** 지
난 2월, 펜디가 럭셔리 리테일 중심지 청담동에 국내
첫 플래그십 부티크인 팔미초 펜디 서울을 오픈했다.
부티크 1층은 가족 제품과 여성 컬렉션의 액세서리로
채웠으며, 2층에는 여성 컬렉션의 레디투웨어 · 슈
즈 · 퍼 제품을 위한 공간이 위치하고, 3층에서는 남
성 컬렉션과 액세서리를 소개한다. 예술 컬렉션을 전
시한 프라베에는 펜디 VIP 고객을 위한 특별한 공
간을 준비했다. 새로운 펜디 부티크, 팔미초 펜디 서
울에서 로마의 럭셔리한 감성을 느껴보자.
문의 02-514-0652

인렉산더 맥퀸 2023 S/S 컬렉션 주얼 호보 백
영국의 럭셔리 패션 하우스 알렉산더 맥퀸이
2023 S/S 컬렉션에서 하우스의 시그니처
인 너클로 장식한 주얼 호보 백을 공개했
다. 너클에 더한 패시 스톤에서 영감을
받아 인렉산더 보다 실루엣을 연출해 날
렵하고 세련된 하우스의 정체성을 내
놓았다. 메탈릭 실버 · 블루 · 레드 컬러로 세
롭게 만들 수 있는 주얼 호보 백은 슬
드백과 토트백으로 연출할 수 있는 스
물, 체인 스트랩을 활용해 크로스 백과
핸드백으로 연출할 수 있는 미니, 총 2
가지 사이즈를 선보였다.
문의 02-6905-3472

보타가 베네타 2023 여름 컬렉션 안
다이드 백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보타가
베네타의 2023 여름 컬렉션에서 하우스의 시
그니처인 인트렉타이트 기법을 새롭게 해석한 '안
다이드 백'을 선보였다. 구조적인 실루엣과 라온
드 셰이프로 모사리를 표현한 이번 백은 부드러운
운 카트 리더 소재와 메탈 낫 디테
일로 실미성과 기능성을 담아서
실용적이면서 타임리스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사이즈는 스몰 ·
미디엄 · 라지, 총 3종류이며 글
간을 준비했다. 새로운 펜디 부티크, 팔미초 펜디 서
울에서 로마의 럭셔리한 감성을 느껴보자.
문의 02-3438-7682

BEAUTY

FASHION



RALPH LAUREN